

연필 화났다

유성규 지음



주제	동시조를 감상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기
권장 차시	8 차시
대상 학년	3~4 학년
관련 주제어	동시조, 동시조쓰기, 노랫말 바꾸기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 국 05-01]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4 국 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 국 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음악 [4 음 01-03] 재재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한다.
작성	창원 북면초등학교 손희선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시조의 역사가 일천 년이 넘었다는 것도, 시조의 한 장르로써 아이들을 위한 동시조가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한글이 한국의 심장이라면, 우리말의 음절 수에 운율을 맞추는 시조는 한국문학의 꽃이라는 믿음 하나로 평생을 바쳐온 유성규 시인이 어린이를 위해서 쓴 동시조를 모았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알려져 많은 초등학교 현관에 걸린 ‘한국의 어린이는’을 비롯한 동시조 100 편을 어린이들이 읽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함께 표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린 해맑은 그림과 함께 동시조를 감상하다보면 시인과 어린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어에 휩쓸려 가는 오늘날의 어린이들을 향한 시인의 사랑이 구슬을 꿰듯 맑고 영롱한 우리말의 가락으로 ‘동시조’에 담겨 전해집니다.

■ 학습 목표

- 동시조를 감상하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동시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나만의 시조를 쓸 수 있다.

■ 수업 준비

이 책은 아이들을 위한 시조를 담은 동시조집이다. 시조라는 정형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필 화났다』 속 동시조는 아이의 마음과 경험이 담겨 있고 또래 친구가 그린 그림이 더해져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시조는 정해진 글자 수와 형식이 있어 노래나 비트에 맞춰 불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음에 드는 시조를 골라 돌아가며 읽는 활동을 할 때 국악 비트를 틀어놓고 랩이나 노래하듯이 낭송하면 시조를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다. 비트에 맞춰 시를 낭송해보면 아이 스스로 자유시와 정형시의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책에서 고른 동시조를 옮겨쓰며 시조의 형식을 한 번 더 느끼고 어울리는 그림도 그려 본다.

책속 동시조를 충분히 즐기고 감상했다면 시조를 써 보는 활동은 한다. 정형시인 시조를 직접 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면 노래 가사 바꾸기나 가사 쓰기처럼 정해진 칸이 있는 활동지를 주고 써 보게 하면 좋다.

이 수업에서는 시조의 형식과 용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조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게 감상하고 즐기며 창작까지 해볼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한다.

수업 준비물

국악 비트(또는 어울리는 음원), OHP 필름, A4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표지 읽기 동시조 맛보기	2 차시
읽는 중	함께 읽기 -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읽기	
읽은 후	'내 마음 속' 동시조 - 동시조 그림으로 표현하기 - 동시조 랩으로 표현하기	2 차시
	나만의 시조 쓰기 우리 반 시조 발표회	2 차시

읽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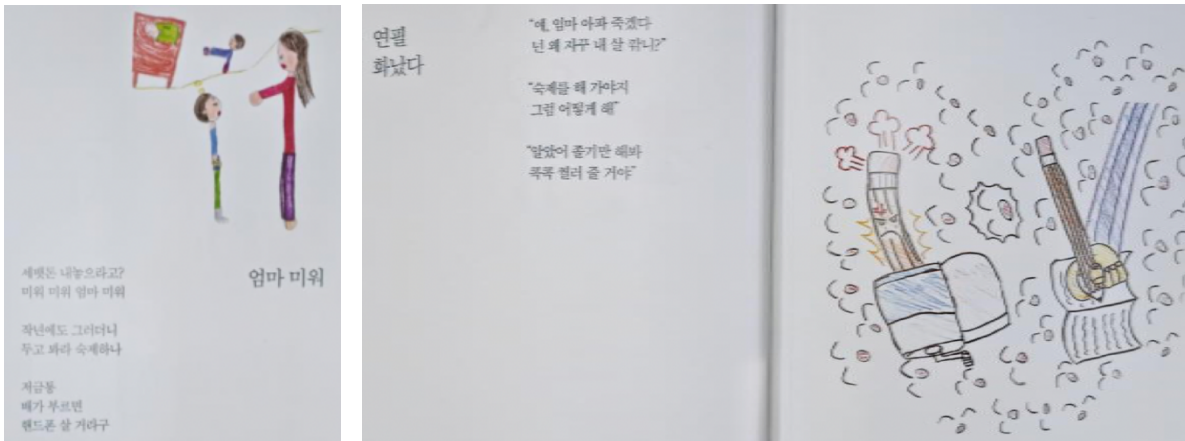
1. 표지 읽기

■ 책 제목을 함께 읽기

- '연필 화났다' 제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공부하기 싫어서 연필이 화났다고 한 것 같아요.
주인이 계속 부러뜨려서 연필이 화난 것 같아요.
주인이 연필을 계속 잃어버려서 연필이 화난 것 같아요.
연필로 낙서를 계속해서 연필이 속상한 것 같아요.
- 이 책은 동시조집입니다. 동시조가 무엇일까요?
예: 동시를 조별로 모아놓았나 봐요.
동시는 동시인데 뭔가 다른 건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2. 동시조 맛보기

■ 동시조 1-2 편 미리 읽어주기



- 동시조 하나를 골라 읽어 준 뒤 동시조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합니다.

Tip. 읽어주는 동시조와 비슷한 주제를 가진 시가 있다면 비교해서 몇 편을 함께 읽어준다. 어떤 점이 다른지 발문하면 동시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형식의 시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읽는 중

1. 함께 읽기

■ 차례의 동시조 제목을 살펴보기

■ 마음에 드는 제목 고르기

-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은 무엇일까요?

예: <뭘 믿고 까부니>를 읽어보고 싶어요. 동생이 나한테 맨날 까불어서 골랐어요.

<연필 화났다>가 제목이라서 읽어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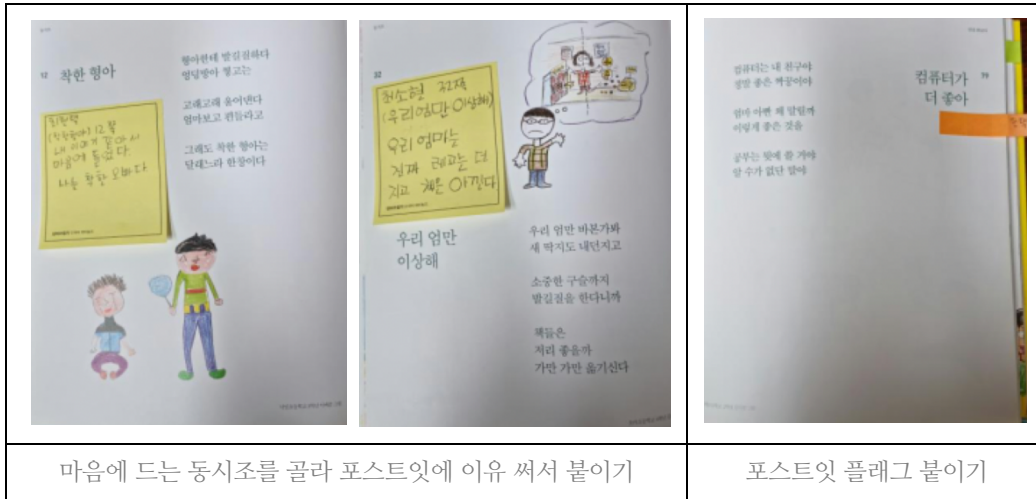
<우리 식구들 놀기>를 골랐어요. 가족들이랑 놀고 싶어서요.

<거꾸로 산다>를 읽으면 좋겠어요. 나도 거꾸로 살고 싶어요.

■ 자기가 고른 제목의 동시조 낭송하기

- 동시조를 각자 소리 내어 두 번 이상 낭송해봅시다.
- 자신이 고른 동시조를 친구들에게 낭송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 친구의 낭송을 듣고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봅시다.

■ 읽기 방법 정하여 책읽기



- ‘1부 네가 더 크다?’는 각자 소리 내어 낭송해봅시다. 읽다가 마음에 드는 동시조가 나오면 포스트잇에 자기 이름을 쓴 뒤 고른 이유를 써서 빈 곳에 붙여둡니다.
- ‘2부 뭘 믿고 까부니’는 짝꿍과 번갈아가며 낭송해봅시다. 읽다가 마음에 드는 동시조가 나오면 포스트잇 플래그를 붙여둡니다.
- ‘3부 한국의 어린이는’은 반 전체가 돌아가며 낭송해봅시다. 읽다가 마음에 드는 동시조가 나오면 포스트잇 플래그를 붙여둡니다.

Tip. 동시조는 묵독보다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좋다. 한 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읽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야 아이들이 더 집중할 수 있다. 혼자 읽기, 반 전체가 함께 읽기, 모둠에서 돌아가며 읽기, 짝과 번갈아 읽기 등 반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읽으면 좋다.

읽은 후

1. '내 마음 속' 동시조

■ 내 마음에 속 든 동시조 고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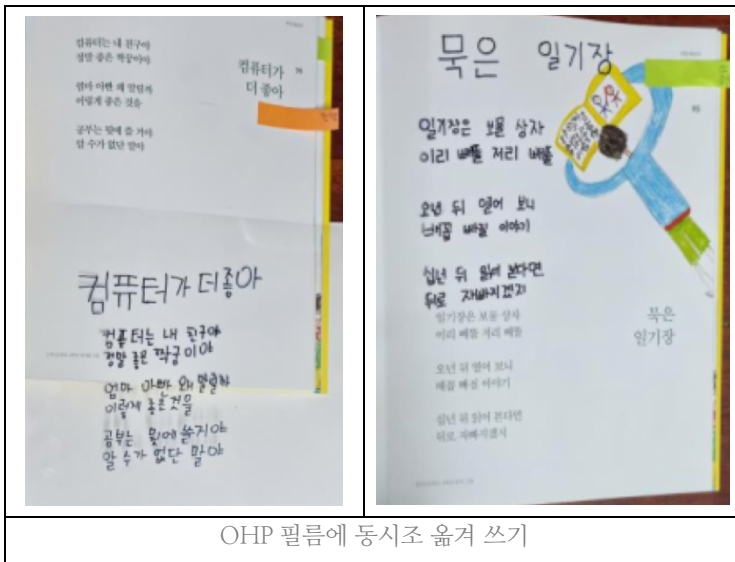
- 책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든 동시조 한 편을 고르고 이유도 생각해봅시다.

Tip. 책을 읽을 때 포스트잇을 붙여둔 동시조 중 고르면 조금 더 쉽게 고를 수 있다.

■ 동시조 옮겨 쓰기

- 자신이 고른 동시조를 OHP필름에 네임펜으로 옮겨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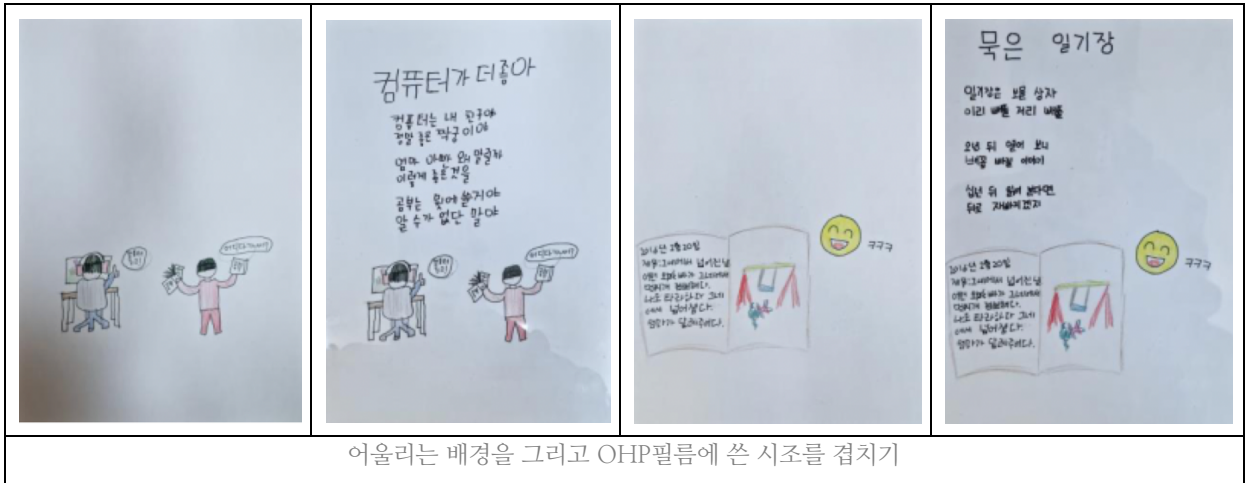
Tip. 시조의 행과 연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도록 미리 지도한다. 옮겨 쓰면서 정형시의 형식이 무엇인지 짐작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OHP 필름에 동시조 옮겨 쓰기

■ 동시조에 어울리는 그림 표현하기

- 옮겨 쓴 동시조를 한 번 더 낭송하며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어울리는 배경을 그리고 OHP필름에 쓴 시조를 겹치기

■ 동시조화 감상하기

- OHP필름의 동시조와 그림을 겹쳐서 동시조화를 만들고 감상해봅시다.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한 뒤 생각과 느낌을 나눠봅시다.

예: 친구들이 표현한 동시조가 모두 3연으로 되어있어요.

동시조에 어울리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시험지> 동시조에 그려진 친구의 얼굴이 진짜 긴장되고 무서워 보여서 실감났어요.

<묵은 일기장> 동시조화를 보니 1학년 때 내가 쓴 일기장을 꺼내서 읽고 싶어졌어요.

■ 동시조를 랩으로 표현하기

- 국악 비트에 맞춰 동시조를 랩처럼 불러봅시다.

Tip. 유튜브에서 국악비트를 검색하면 무료 국악 비트가 여러 가지 나온다. 익숙한 멜로디에 신명나는 비트가 있어 재미있게 발표할 수 있다. 비트를 틀어주고 연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비트를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틀어두고 돌아가며 발표하면 된다.

- 동시조를 랩으로 표현하고 느낀 점을 나눠봅시다.

예: 동시조가 비트와 딱 맞아떨어질 때 짜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쇼미더머니에 나간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동시조를 랩으로 하는 게 신기했어요.

동시조가 박자에 딱딱 맞아서 랩하는 것이 쉬웠어요.

글자 수에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 동시조가 어떤 것인지 다시 이야기 나눠봅시다.

예: 3연으로 이뤄져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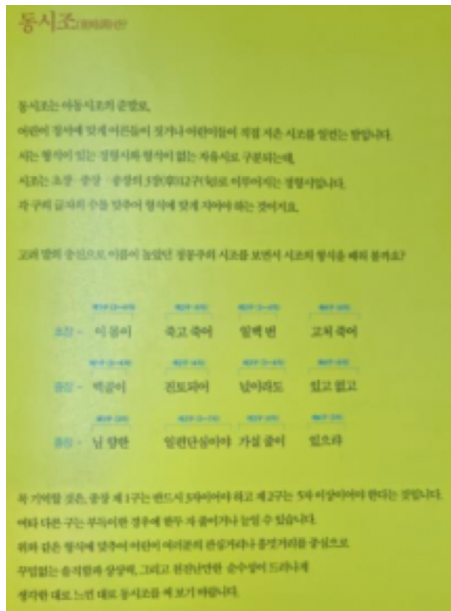
글자 수에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연이 4부분으로 나뉘지는 느낌이 들어요.

시조는 옛날 사람들이 쓰던 거니까 조상님들이 하던 랩 같아요.

시조에는 틀이 있는 것 같아요.

- 동시조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책 앞부분에 동시조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된 부분 함께 읽기)



Tip. 너무 자세한 설명보다는 형식이 있는 시라는 것과 노래 가사나 랩처럼 박자에 맞춰서 부르기 쉽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2. 나만의 시조 쓰기

■ 나의 경험이나 생각을 담은 시조 쓰기

- 시조를 쓸 때 주의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예: 초장, 중장, 종장의 글자 수를 어느 정도 맞춰야합니다.

3줄을 맞춰서 써야할 것 같습니다.

4박자에 맞게 부분이 나눠야할 것 같아요.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시조를 써봅시다.

Tip. 가사 바꾸기 활동과 비슷하다고 안내한다. 칸이 나눠진 활동지를 주고 쓰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글자 수를 딱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1~2자 정도는 줄이거나 늘여도 된다고 알려 준다.

■ 우리 반 시조 발표회하기

- 내가 쓴 시조를 친구들에게 발표해봅시다. 시조를 만들어 낭송해도 좋고, 비트에 맞춰 랩으로 공연을 해도 됩니다.

Tip. 어울리는 음악이나 비트를 미리 준비해 틀어놓고 발표하면 발표회의 분위기를 더 살릴 수 있다.

예:

가족 여행 최소현	게임 좋아 최현택	사라져줘 손희선
가족과 여행은 매일매일 가고 싶어 새로운 장소에서 특별하게 보낸 시간 추억들은 다이어리에 고이고이 담아뒀지	친구와 게임시간 얼마나 행복한지 엄마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매일매일 게임하고파 엄마 제발 허락해줘	통통통 출렁출렁 울퉁불퉁 내 뱃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부탁이야 우주 밖으로 사라져줘 뱃살아
나만의 시조		

■ 내 마음 속 최고 시조 뽑기

- 친구의 시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과 이유를 나눠봅시다.

예: 현택이의 시조는 글자 수가 딱 맞고 라임이 살아있어 진짜 랩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소현이의 시조를 들으니 가족과 여행가고 싶어졌어요.

제목은 보고 무엇이 사라지라는 건지 엄청 궁금했는데, 듣고 나니 웃겼어요.

참고자료: 유튜브 - 국악 비트 검색

